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충족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2장 '성경의 충족성', 343–366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충족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들어 있다”로 정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한 구절씩 풀며 시작한다. 이어서 언약 문서의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경고, 거짓 선지자와 사람의 전통을 꾸짖는 본문, 디모데후서 3:16-17을 들어 이 교리가 성경 자체의 가르침임을 보인다.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점점 늘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그 시점의 계시는 그때 충분했다'는 일반충족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으니 완성된 정경이 최종적으로 충분하다'는 특별충족성을 나눈다. 후반부에서는 충족성이 성경 밖 지식을 막는 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경의 원리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묶어 결론을 얻는 '적용의 논리'를 세운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의 전통, 열광주의·은사주의의 새 계시, 개신교 자신의 전통주의를 차례로 다룬다. 그리고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가?”라는 물음에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 어떤 의미에선 아니다”라고 정리한다.

📜 절별 정리

📜 1-1. 신앙고백적 표현 ① —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충분한가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기본 틀로 삼는다. 고백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것은 성경에 직접 쓰여 있거나,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구원, 믿음과 삶'을 좁게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논리적 추론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곧 본문 안에 이미 있는 뜻을 꺼내는 이상적인 논리다. 그래서 그 결론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감 금지 경고는 성경 밖 정보를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첨가는 '새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열광주의자)이나 사람의 전통을 성경과 동급으로 놓는 일(로마 교회)로 일어난다. 프레임은 개신교도 자기 전통,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조차 성경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1. 충분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2. 성경은 신학자에게도 배관공에게도 충분
3. 바르게 끌어낸 결론은 성경과 같은 권위
4. 가감 금지는 성경 밖 지식 금지가 아님
5. 새 계시와 사람의 전통, 둘 다 첨가

> **신명기 4:2**
> 언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 첨가 금지의 대표 본문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신명기 12:32**
> 명령에 가감하지 말라는 같은 경고의 반복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 **잠언 30:6**
>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지혜서의 경고
>
>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마지막 책의 가감 금지 — 언약 문서식 '비문의 저주'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호수아 1:7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로마서 3:23 · 디모데전서 2:5 (각주)

겉보기엔 타당한데 틀린 삼단논법의 예 — 추론에는 해석의 지혜가 필요함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신적 말씀을 담고 있다"

📜 1-2. 신앙고백적 표현 ② — 성령의 조명과 '정황'

고백서는 충족성을 말한 뒤 곧바로 두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충족성은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는 뜻이지, 구원에 필요한 것이 말씀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 "충족성 교리는 성령이 설 자리를 없앤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 둘째, 예배와 교회

원리는 모든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판정할 만큼 넓다. 예를 들어 성경은 낙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자연계시가 태아가 무고한 생명임을 알려 주고 성경의 살인 금지가 거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성경 밖 자료를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충분한 말씀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핵전쟁이나 주차 요금기를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남는 질문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나다.

1. 말씀은 충분, 그래도 성령의 조명은 필요
2. 예배·치리의 세부는 분별로 정함
3. 고린도전서 10:31이 모든 행동을 판정
4. 성경 밖 자료는 적용 수단이지 첨가 아님
5. 남는 질문은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 **고린도전서 10:31**
>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 성경 원리가 삶 전체를 덮는다는 근거
>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신명기 4:2**
> 자연계시를 적용에 쓰는 일이 이 구절이 금하는 '첨가'가 아님을 가르는 기준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2. 성경적 기초

고백서의 이 교리는 성경적인가? 프레임은 그렇다고 답한다. 언약 문서의 가감 금지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에 자기 말을 끼워 넣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적용하셨다. 바울 시대에는 그의 이름을 빌린 위조 편지까지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모세, 엘리야, 이사야, 요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은 왕과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의견보다 앞세웠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사람의 의견이 휘두르는 압제에서 자유롭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16-17에서 영감된 성경, 곧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듯 내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한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이 '모든'이 바로 충족성이라고 본다.

1. 가감 금지는 '하나님만 다스리신다'는 뜻
2. 말씀에 더하기는 하나님 보좌를 넘보는 일
3. 거짓 예언과 사람 계명을 성경이 정죄
4. 말씀을 쥔 사람은 사람 의견에서 자유
5. '모든 선한 일'이 충족성의 근거

> **열왕기상 13:18**
>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속인 늙은 선지자 —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예
>
>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 **열왕기상 22:5-12**
> 아합 궁정의 선지자들 —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 말로 선포
>
>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

신명기 18:20

명령받지 않은 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는 죽어야 함 — 첨가의 무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13-14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꾸짖으심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가복음 7:8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 예수님의 바리새인 비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2

바울 이름을 빌린 가짜 편지 가능성 — 사도 권위를 사칭한 첨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16-17

영감된 성경이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함 — 충족성의 직접 근거

>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3. 일반충족성과 특별충족성

디모데후서 3:16-17에서 바울이 충분하다고 한 성경은 구약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약을 더 주셨을까? 프레임은 여기서 두 종류의 충족성을 나눈다. 일반충족성은 구속사의 어느 시점이든, 그때 주어진 계시가 그때 사람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원리다. 타락 뒤 아담에게 주신 약속(창세기 3:15)은 아담에게 충분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필요했다. 구속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명료성처럼 충족성도 '윤리적' 교리다. 순종하지 않고서 “말씀이 불충분해서”라고 핑계 댈 수 없게 한다. 구약은 첫 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 서신 등을 더 주셨다. 이제 구약은 혼자가 아니라 정경 전체의 일부로서 충분하다. 일반충족성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시는 것은 막지 않고, 사람이 더하는 것만 막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구속의 최종성은 재림까지 새 말씀을 기대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특별충족성이다. 히브리서 1:1-4는 아들 안에서 주신 최종 계시와 완성된 정결 사역을 나란히 놓는다. 히브리서 2:1-4는 구원의 메시지가 주님과 사도들과 표적으로 이미 확증되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한다. 베드로후서 1:3-11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고 한다. 구속이 끝나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끝났다면, 성경도 끝난 것이다.

1. 일반: 그 시대 계시는 그 시대 의무에 충분
2. 계시는 구속사와 함께 점점 늘어남
3. 충족성은 핑계를 막는 윤리적 교리
4. 특별: 완성된 정경은 최종적으로 충분
5. 구속이 끝났으니 계시도 끝났다

> **디모데후서 3:16-17**
> 바울이 충분하다 한 '성경'은 구약 — 일반충족성의 출발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 약속 — 아담에게 충분했던 초기 계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서 1:1-4

여러 모양의 예언과 대비되는 아들 안의 최종 계시, 정결 사역을 마치고 우편에 앉으심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2:1-4

큰 구원이 주님·들은 자들·표적으로 이미 확증됨(과거형) — 사도적 증언의 완료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3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 그속 뒤에 덧붙인 것이 없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11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 — 충족성의 언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 4. 성경 외적 자료의 사용

충족성이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임을 기억하면, 신학과 윤리에서 성경 밖 자료가 어떤 자리를 가지는지 보인다. 어떤 이들은 충족성 때문에 성경 밖 정보를 쓰면 안 된다고 오해한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주실 때 나무와 열매와 먹는 일에 대한 일상 지식을 전제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가정생활에 대한 일반 지식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연결하는 것, 이것이 '적용으로서의 신학'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본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본문을 눈앞의 현실에 적용하지 않아서 꾸짖으셨다. 날씨는 읽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못 읽었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께 오지 않았으며, 출애굽기 3:6을 부활 문제에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레임은 적용할 줄 모르면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황적 관점 없이는 규범적 관점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 15:4와 디모데후서 3:16-17이 보여 주듯, 성경은 처음부터 후대 사람을 가르치고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가리도록 쓰인 책이다. 그렇게 쓰는 것이 곧 적용이다.

1. 성경 밖 정보를 막으면 생각이 불가능
2. 하나님은 명령하며 일상 지식을 전제하심
3.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적용할 줄 안다는 것
4. 규범적 관점은 상황적 관점과 함께 간다

날씨는 분별하나 시대의 표적은 못 함 — 아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실패

[2]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한복음 5:39-40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께 오지 않음 — 적용의 핵심 실패

[39]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2:31-33

출애굽기 3:6에서 부활을 끌어내심 — 익숙한 본문을 새 질문에 적용함

[31]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출애굽기 3:6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 — 사두개인이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본문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로마서 15:4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 — 성경의 목적은 적용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9 · 베드로후서 2:1-22

사도들이 떠난 뒤 올 거짓 교사에 대한 염려 — 성경을 분별 기준으로 쓰라는 배경

디모데후서 3:1-9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베드로후서 2:1-22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베드로후서 1:19-21

디모데후서 3장과 짝을 이루는 베드로의 성경 진술(이 책 20장 참조)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옳으니라 [20]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5. 적용의 논리

프레임은 성경 지식과 상황 정보를 엮는 과정을 '도덕적 삼단논법'으로 보여 준다. 첫째 전제는 원리(규범적), 둘째 전제는 그 원리가 걸리는 사실(상황적), 결론은 내가 내릴 판단(실존적)이다. 예를 들면 “도둑질은 잘못이다 → 횡령은 도둑질이다 → 그러므로 횡령은 잘못이다”이다. 궁극적 규범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일반계시나 개인의 내면에서 오는 확신에 대한 해석은 성경이 검증하지, 그 반대가 아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파리로 이사 가라 하셨다”고 하면 성경으로 그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서 윤리에서의 충족성은 '성경이 모든 규범적 전제를 제공한다'로 표현된다. 성경이 둘째 전제까지 주는 때도 있다(간음 금지, 음욕은 간음). 하지만 대개는 소득세나 일요일에 여는 태닝 가게처럼 성경 밖 사실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에서 일반계시로 옮겨 가는 것이다. 사실 첫째 전제조차 히브리어 문법, 본문 비평, 번역, 주석 같은 성경 밖 지식에 기댄다. 일반계시 없이는 성경을 아예 쓸 수 없다. 그래도 성경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신이 서면, 그 확신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지식을 다스려야 한다. 이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해석학적 순환이 있지만, 규범의 서열에서는 성경이 맨 위다.

1. 원리(규범)+사실(상황)→판단(실존)
2. 모든 규범적 전제는 성경이 제공
3. 상황의 사실은 대개 일반계시에서 옴
4. 성경을 읽는 일 자체가 성경 밖 지식 필요
5. 확신된 성경의 가르침이 서열 맨 위

> **출애굽기 20:14**
> 간음하지 말라 — 성경이 규범적 전제를 주는 예

> 간음하지 말라

> **마태복음 5:27-28**
>
> 음욕은 마음의 간음 — 성경이 상황적 전제까지 주는 드문 예
>
>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6-1. 성경 충족성에 대한 도전 ① — 로마 교회와 은사주의

고백서가 겨냥한 두 반대자가 있다.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는 로마 교회, 그리고 성경과 같은 종류와 권위를 가진 새 계시를 주장한 재세례파 열광주의자다.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로마 신학은 성경과 전통을 계시의 '두 근원'으로 보았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한 근원'을 말해서 개신교 귀에 더 좋게 들린다. 하지만 그 한 근원은 전통이고 성경은 그 일부일 뿐이라, 여전히 충족성과 맞지 않는다. 열광주의자의 후예인 은사주의는 입장을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은 정경이 닫혔다고 인정하고, '새 계시'가 성경과 동급은 아니라고 한다. 프레임은 묻는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성경만큼 권위가 없을 수 있는가? 어떤 은사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권위가 더 높지는 않지만 교회의 공식 헌법'으로 본다. 프레임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왜 새 계시를 성경에 더할 수 없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웨인 그루뎀은 신약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만큼 권위가 없어서, 오늘날 예언은 틀릴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 프레임은 두 언약 사이에 예언 개념이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예언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면 최종 권위와 무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1. 로마: '두 근원'→'한 근원', 주인은 전통
2. 은사주의 다수도 정경 종결은 인정
3. '하나님 말씀인데 권위가 낮다'는 모순
4. 그루뎀: 오늘의 예언은 틀릴 수 있다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프레임은 그루뎀 비판의 근거를 이 책 15장(예언) 논의로 돌린다

📜 6-2. 성경 충족성에 대한 도전 ② —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가: 다섯 가지 의미

개혁파는 본능적으로 “아니오”, 일부 은사주의는 "예“로 기운다. 프레임은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 어떤 의미에선 아니다"라고 답하며 다섯 가지로 나눈다.

첫째, 창조를 통한 일반계시는 계속된다. 해가 뜰 때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 말한다. 일반계시 일부는 직관, 꿈, 예감처럼 의식 아래의 경로로 올 수도 있다. 그것은 실제 하나님 지식이지만, 성경의 인격적 말씀과 같지 않고 정경에 더할 수 없으며 성경 권위 아래에 있다. 놀랍게 들어맞는 예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말하겠다는 것이 프레임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둘째, 구속사를 이끄는 언약적 특별계시는 멈췄다.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 뒤에 또 다른 언약은 없다. 이것이 특별충족성이다.

셋째, 성령이 성경을 신자의 삶에 적용하시는 일은 계속된다. 프레임은 이것을 마태복음 11:27과 에베소서 1:17이 말하는 계시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혁파의 처방(“성경을 더 꼼꼼히 읽으라”)도, 은사주의의 처방(“성령의 새 계시를 들으라”)도 둘 다 정보를 더 찾는 지성 중심의 해법이라고 비판한다.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이다.

넷째,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도 일종의 계시다. 성경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지만 개혁파 전통은 성령 충만한 설교를 '예언하기'라 불렀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은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이 책 35장에서 더 다룬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 '아포칼립시스'(나타남, 드러남이라는 헬라어)는 차원이 전혀 다른 계시이고, 아직 오지 않았다.

1. 일반계시: 계속된다(그러나 정경은 아님)

3. 성령의 적용과 깨닫게 하심: 계속된다
4. 설교: 성경과 다른 의미의 '하나님 말씀'
5. 재림 때의 계시: 아직 오지 않았다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 — 지금도 이어지는 '깨닫게 하심'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17

지혜와 계시의 영 — 신자의 필요는 새 정보보다 영적 인식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복음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 — 재림의 계시

>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로마서 8:19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 — 미래의 드러남

>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7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베드로전서 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13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8 (각주)

'지혜의 말씀·지식의 말씀' — 프레임은 이를 성경 적용을 돕는 성령의 도움으로 잠정 이해

고린도전서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 다른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

📜 6-3. 성경 충족성에 대한 도전 ③ — 개신교 전통주의

프레임은 고백서가 다룬 두 도전 외에, 오늘날의 세 번째 도전으로 개신교 자신의 전통주의를 든다.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을 모두 버리지는 않았다. 다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맞서셨듯,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을 보충한다고 여겨진 것을 걷어냈다. 충족성은 신자의 양심에 성경 밖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무기였다. 그런데 500년 가까이 지나며 개신교도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을 쌓았다. 그러니 사람의 전통을 성경의 규범과 구별하는 일은 지금도 중요하다.

첫째 예는 미국 근본주의의 금주 요구다. 성경이 술 취함을 정죄하고 음주 사고도 많으니 이해는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나에서 포도주를 내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권했다. 개인 방침으로 절제할 수는 있어도 모두가 지킬 규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둘째 예는 신앙고백서 서명이다. 서명은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문서가 성경과 함께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없다. 성경에 비추어 고백서를 고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서명은 '오직 성경'을 어긴다. 교회 안에는 말씀에 따라 고백서를 다시 살필 자유, 때로는 고백서와 다르게 가르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예는 예배 음악, 악기, 순서, 격식에 관한 관행을 모두의 의무로 삼고 다른 교회를 영적으로 낮게 보는 태도다. “더 위엄 있다”, “초대교회에 더 가깝다” 같은 심미적·역사적 기준이 성경을 대신하면, 성경이 허용한 것을 정죄하고 명하지 않은 것을 명하게 된다. 이것도 충족성을 어기는 일이다.

1. 개신교도 전통을 쌓았다, 구별이 필요
2. 금주는 개인 절제로 가능, 보편 규칙은 아님
3. 고백서를 고칠 수 없는 서명은 문제
4. 예배 스타일을 절대화하면 충족성 위반
5. 취향·역사 기준이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됨

> **요한복음 2:1-11**
>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심 — 금주는 성경이 정한 보편 규칙이 아님
>
>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 놓였는지라 …

> **디모데전서 5:23**
>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권면 — 같은 근거
>
>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 조금씩 쓰라

마가복음 7:8

이 절에서는 장절 없이 '바리새인에 맞선 예수님'으로 언급 — 사람의 전통이 계명을 밀어내는 위험

>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의 충족성(오직 성경, sola Scriptura)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에 주시려는 말씀은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다른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 없다는 가르침.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론
성경 본문에 이미 들어 있는 뜻을 바른 논리로 꺼낸 결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비문의 저주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 끝에 “이 내용을 고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새겨 둔 경고문.

일반충족성 / 특별충족성
그때마다 주어진 계시가 그 시대 의무에 충분하다는 원리 /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과 함께 닫힌 지금의 정경이 재림까지 최종적으로 충분하다는 원리.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밝혀 주시는 일. 새 계시를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

정황
예배 시간, 장소, 순서처럼 성경이 일일이 정하지 않아서, 성경의 일반 원리 안에서

일반계시(자연의 빛)·특별계시·실존계시

창조 세계와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계시 /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계시(지금은 성경) /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자신 안에 드러나는 계시를 가리키는 프레임의 용어.

도덕적 삼단논법과 세 관점

성경의 원리(규범적)와 상황의 사실(상황적)을 묶어 나의 판단(실존적)을 얻는 추론. 프레임의 관점주의를 윤리에 적용한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

성경을 이해하려면 문법·역사 같은 성경 밖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다시 성경의 판단을 받는, 서로 돌고 도는 관계.

신앙고백서 서명

교회 직분자가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서약하는 제도. '엄격한 서명'은 한 군데도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충족성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다.
- 계시는 구속사와 함께 자라 왔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으므로 정경도 최종적으로 충분하다(특별충족성).
- 성경 밖 지식과 일반계시는 성경을 적용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확신된 성경의 가르침이 언제나 맨 위에서 다스린다.
- 충족성은 로마의 전통과 새 계시 주장뿐 아니라, 개신교가 스스로 쌓은 전통을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8편 · 성경으로 충분한가 · 충족성, 새 계시와 전통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